

트럼프 대통령 측근 찰리 커크, 피격 사망

대표적 보수 활동가, 유타 대학 행사서...정치 폭력 우려 고조

보수 성향 청년단체 '터닝포인트 USA' (Turning Point USA)의 공동 창립자이자 대표인 찰리 커크(31)가 유타주 대학 행사에서 총격을 받고 숨졌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보수 진영의 대표적 활동가였다.



▲ 찰리 커크,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커크의 사망을 알리며 "위대하고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추모했다. 트럼프는 "그 누구도 미국 청년들의 마음을 찰리 만큼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총격은 10일 유타 밸리대학(오렘시) 캠퍼스에서 열린 '아메리칸 컴백 투어' 첫 행사 도중 발생했다.

현장 영상에는 커크가 무대에서 청중과 총기 폭력에 대해 문답하던 중 단 한 발의 총성이 울리고 목 왼쪽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장면이 담겼다. 참석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혼란 속에 대피했다.

수사 당국은 커크 암살 사건의 용의자로 타일러 로빈슨(22)을 지목했다. 스펜서 록스 유타 주지사는 12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9월 11일 저녁 로빈슨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어 "로빈슨의 한 가족이 지인에게 연락했고, 그 지인이 워싱턴 카운티 셰리프에 로빈슨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고백했거나 암시했다는 정보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총격 사건으로 정치 폭력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최근 미 네소타 주 의원과 배우자의 피살, 콜로라도 퍼레이드 방화,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자택 방화 사건 등 정치적 동기가 의심되는 공격이 잇따랐다. 지난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 도중 총격을 당하는 사건도 있었다.

민주·공화 양당은 즉각적으로 이번 사건을 규탄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커크에 대한 공격은 역겹고 비열하다"고 밝혔고, 2011년 총격으로 부상을 입었던 민주당 전 하원 의원 가브리엘 기퍼즈는 "커크의 아내와 두 자녀, 친구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다.

현장에 있었던 제이슨 체이프츠 전 유타주 하원의원(공화)은 "총성이 단 한 발이었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된 것 같았다"며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그는 행사장 경비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유타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 중 하나인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 충격"이라고 말했다.

커크는 2012년 18세의 나이에 윌리엄 몽고메리와 함께 터닝포인트를 설립했다. 초기에는 큰 성과를 내지 못했으나 보수 자금 후원자들의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고, 2016년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자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이후 커크는 트럼프 대통령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선거 보좌역으로 활동하며 보수 진영에서 영향력을 확대했다.

커크는 이후 보수 진영의 문화전쟁 논쟁을 주도하며 케이블 방송에 자주 출연했고, 트럼프 부자와도 긴밀히 교류했다. 이번 총격 사망으로 보수 진영은 큰 충격에 빠졌다.

전국서 중국산 불법 전자담배 단속

연방 요원들이 10일 전국에서 단속을 벌여 수십만 개의 불법 전자담배 제품을 압수했다.

법무장관 팸 본디와 보건복지부 장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를 비롯한 연방 고위 관계자들은 일리노이주 시카고 외곽의 한 유통업체에서 압수된 불법 제품 60만 개 이상을 공개하며 단속 성과를 알렸다. 관계자들은 전국 매장에서 불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과일향 전자담배 상자를 배경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본디 장관은 "그들은 아이들, 청년층, 대학생, 심지어 군인들까지 노리고 있다"며 "중국 기업들이 이 제품으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단속은 아이들이 선호하는 맛을 내세운 불법 전자담배가 미국에 대거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근 조치다. 중국산 제품의 범람으로 FDA는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수입업자와 유통업자들이 판매하는 수천 개 불법 제품을 제거하려 노력해왔다.

"트럼프, 한국서 개최 APEC 참석" 시진핑·김정은 회동 가능성 주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0월 말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을 준비하고 있다고 CNN이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동 가능성이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부 관계자들은 APEC 회의 계기에 미중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논의가 진지하게 오가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방문은 미중 무역전쟁과 북미 관계의 긴장이 교차하는 시점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시 주석과의 회동은 향후 미중 무역 협상의 향방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하다. 특히 최근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2019년 해군 네이비실 작전 실패 사건이 북미 대화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594호 숫자퍼즐 (이번호 정답은 P53에 있습니다)

2			7	1	5		3	6
		8		6			2	
3	5					7		
	2			5			6	
4	3				2			
		1		8				4
				2	1	6		
	4		8				1	7
1		3	5			9		

종교 무관
주 7일 예약상담

수맥파는 피하는 것이 상책(上策)이다

☎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수맥파(Geopathic Stress)는 지층이나 건물의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파장으로서 장기간 수맥파에 노출이 되는 경우에 인체의 원활한 신진대사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다. 우리 인체는 아주 미세한 전기 신호체계를 가지고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는데 수맥파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면 원활한 전기 신호전달 체계에 교란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특히 수면을 취하는 장소에 수맥파가 발생한다면 인체의 면역기능을 떨어뜨리게 되면서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외부로부터 인체로 침입할 수 있는 각종 유해한 기운이나 또 인체 내에서 매일매일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유해한 암세포에 대해서 인체의 저항력이 약해지게 되고 결국 암과 같은 감당하기

질병도 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수맥파는 깊은 수면을 방해하게 되므로 매일매일 숙면을 취하지 못하도록 만들면서 낮 시간 동안의 활동력을 크게 떨어뜨리면서 만성 피로에 시달리도록 만든다. 이러한 수맥파는 거주하는 공간의 지하지층에 있는 지질적인 구조나 환경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고 또는 건축물의 철골 구조물 등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막아질 수 있는 성질의 파장이 아닌 것이다. 간혹 시중에서 선전하는 것들 중에 어떤 매트를 깔면 수맥파를 막아준다고 선전을 하면서 아주 비싼 가격에 이상한 매트를 팔기도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절대로 수맥파는 막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들어 아주 심한 바람이 부는 곳에서 널빤지로 바람을 막는다고 해서 바람의 영향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가장 좋은 방법은 바람이 부는 장소를 피해야 하는 것이다. 필자도 아주 오래 전에 커다란 수맥파가 삼중으로 겹치는 장소에서 생활해 본 적이 있다. 그 당시에는 필자도 혈기가 왕성한 젊은 나이였는데도 갈수록 건강이 악화되고 매일 밤에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동판도 3겹이나 깔아서 자보기도 하고 침대 위에 커다란 피라미드도 설치해 보기도 하면서 수맥파를 막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수맥파의 영향을 피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결국은 그 집에서 이사를 나오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수맥파는 막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상책(上策)인 것이다.

★사주명리, 풍수지리, 수맥감정 전문★

평생사주 총운	직업, 사업, 재물	궁합, 애정
상호, 이름 작명	풍수지리 출장 감정	수맥 탐사 전문

예약
필수

714.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정교한 사주해석 전문

청해역학학술원